

연중 제23주일

기도서 429 번(A해)

제1독서: 에 제 33,7-9

제2독서: 로 마 13,8-10

복 음: 마 태 18,15-20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전주서노송동560~6 전주교구청

☎ 0041 • 0042 • 0043

□강론



“주님 안에 하나되게 하소서”

유 장 훈 신부

추석명절을 눈앞에 두고 수해의 깊은 상처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한 올해 농사는 대풍년이라고 무던하게도 얘기를 나누다가 삼시간의 물난리로 피해를 입고 보니 더우기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면서 결코 어느 순간에도 자만해서는 안된다는 심정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가지가지이고 소망도 각각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의 인간 조건이려니 생각하더라도 분분한 생각들에 머리가 아프고, 다정했던 사람들이 서로 갈라지거나 앓을까? 하는 두려움이 깊어집니다. 고집스런 생각과 이기적인 바램으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는 두터운 장벽이 생기고 서로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러한 분열에서 마음이 생기고, 불신이 싹트며 원성이 높아지고 물이 해가 증가하여 중국에 가서는 모든이가 외로움과 빈민속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아집에 점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과 주장만이 절대적이라 생각하고 남의 것은 조금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의견이 관철될 때 비소로 가정이나 단체, 사회나 국가, 심지어 교회에 이익이 온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참 삶의 지표가 된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셈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을 굽히고 남을 존중할 수가 없거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이기심이 조그만 양보도 거부하는 것이리라 여겨집니다. 진실로 나는 지금 무엇때문에 남과 뜻을 함께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또 그렇게도 나의 것을 주장해 오면서 얼마나 많은 자신의 소망을 성취한 것일까요? 비록 허물많은 삶이라 할지라도 모든 허식과 가면을 벗어버리고 지금 순간만이라도 진실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시대와 장소가 다르고 주변의 사정이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절대적인 진리며 생명이요 길은 오직 한분 주님 뿐입니다. 그분에게서만이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진실이 있고, 함께 걸어야 되는 참 삶의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아집에서 벗어나 진실되게 그분을 배우고 따를 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일치할 수 있으며 우리의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는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중에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 주실 것이다”(마태오 18,20). (사목국장)



서로 나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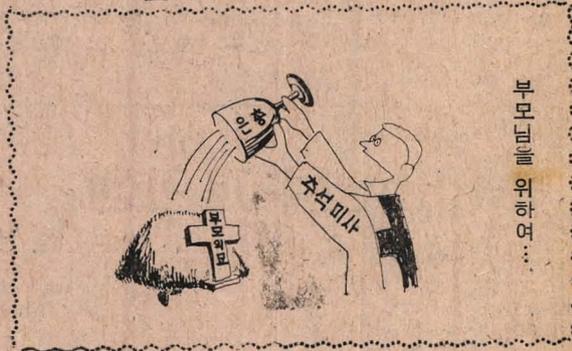
1. 엄청난 수해는 많은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 주었다. 불의에 세상을 떠난 영혼들 앞에 두손을 모으며, 그 유족들과도 슬픔을 함께 나누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서로 나누는 일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사랑으로 나누어야 한다. 체면때문에도 아니고, 더군다나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는 더욱 안된다. 마음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물난리가 날 수 밖에 없는 부족했던 대비책에는 결손되어 용서를 청해야 한다. 아울러 무책임한 행정이 있었다면 의당히 벌도 받아야 한다. 옛날같으면 이러한 때에 임금은 자신의 부덕함에 가슴을 쳤다. 더욱 중요한 일은 우리 모두 자연의 위력을 깨닫고 겸손을 배우는 일이다. 거두어 들이기도 전에 함부로 대풍(大豊)을 노래한 경솔함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

2. 우리 교구는 9월 23일에 한국 성인 탄생 경축대회를 갖는다. “성인 탄생을 경축하면서 그분들의 모범에 따라 진리를 증거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한 형제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 대회의 주제가 「서로 나누어 이 땅에 빛을」이라고 정해졌다. 참으로 필요하고도 절망의 주제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주제를 사는가에 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신음하는 사람에게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그는 다만 주었을 뿐이다. 그런데 크리스찬인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와 나누고 살아왔는가? 그리고 무엇을 나누었는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나누자. 시골에 사는 형제자매들에게 “누추한 집이나 따스하오니” 한 밤을 함께 지내자고 말해보자. 말로만 형제애가 아니라 한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고, 한 잠자리에서 우정과 사랑을 서로 나누어 보자.

숲 정 이 산책



□ 노동 관계법 개정 서명운동 ⑥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3)

5. 밀린 임금을 가장 먼저 주어야 한다.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1983년 8월 현재 재산을 도둑질한 후 달아난 기업주가 103명이며 그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1,50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기업이 체임 혹은 도산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에 의해 질권이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임금채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을 길이 없다. 즉 우리나라 기업들의 빚은 자기자본의 4배 이상이기 때문에 빚을 공제한 후 남는 돈으로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임금채권을 저당권보다 우선시켜야 할 것이며, 임금을 빼먹고 달아나는 악덕 기업주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6. 직업병 및 산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노동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면방직 노동자중 남자 31% 여자 5.3%가 난청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톨릭 산업의학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방직공장의 정방실 여성 노동자중 12%가 진폐증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검사시설이나 기술 수준으로 직업병의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더욱 문제인 것은 저임금과 나쁜 작업환경, 단조로운 작업 반복, 야간근무, 교대근무, 장시간 운동 등으로 인한 결핵, 위장병, 신경계통질병, 소화기질병이나 각종 화공약품 및 유해, 유독작업 공정으로 인한 만성 중독증상때문에 노동자들의 육신이 파괴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미비로 직업병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여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노동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헌법 제9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형식적인 근로기준법 제6장(안전과 보건), 제8장(재해보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등을 대폭 정비하여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7. 실업대책을 세워야 한다.

헌법 제3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실업자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우선 실업자 등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실업자 숫자나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실업자도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실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의료혜택을 무료로 베풀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관련법들을 개정 또는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9월은 순교자 성월

매년 9월에 지내는 「한국 순교복자 성월」이 103위 복자 전원이 시성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한국 순교자 성월」로 제명이 바뀌었다. 또한 9월 26일에 지내오던 「한국 순교복자 대축일」이 없어지고 「성 안드레아 김 대건과 바오로 정 하상과 동료 순교자 대축일」을 9월 20일에 지내게 된다.

우리는 9월 한달동안 특별히 한국 성인 성녀들을 공경하는 동시에 아직 복자나 성인으로 선포되지 못한 순교자들의 시복 시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9월 복자들에게 바쳐온 「복자들에게 드리는 기도」(가톨릭 기도서 22쪽)를 「순교자들에게 드리는 기도」로 바꾸어 계속 바치되 「복자」란 표현을 「성인」으로, 마지막 호칭기도 「복자 라우렌시오와 안드레아와 모든 순교자들이여」는 「성 안드레아 김 대건과 바오로 정 하상과 동료 순교자들이여」로 바꾸어야 한다.

한국 성인 탄생 경축대회 준비 7일 기도회

—9월 16일~22일, 교구 전 본당에서—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정신운동위원회 주관으로 이미 전국적으로 「시성감사 7일 기도회」와 「103위 성인 첫 축일 준비 9일 기도」가 바쳐지고 있으나, 교구 정신운동위원회에서는 23일에 있을 한국 성인 탄생을 기념하는 교구 경축대회를 앞두고 7일 기도회를 갖도록 하였다. 모두 7일 기도회에 참여함으로써 한국 성인 탄생 경축대회가 우리 모두에게 의미있는 대회가 되도록 해야 하겠다.

—의 의

9월 23일에 있을 교구 경축대회를 앞두고 교구의 일치와 발전을 기원하면서 지난 5월 6일 한국에 시성의 영광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구원의 성년의 의의를 200년전에 이미 살으신 장한 선조들의 가신 길을 깊이 묵상하고 본받아 우리도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는 데 있다.

—지 향

①교구 일치와 발전을 기원 ②지속적인 전교 ③서로간의 용서와 화해(성년 구원) ④시복추진 ⑤민족 일치와 남북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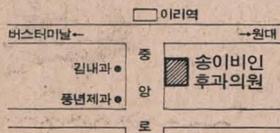
—참여 방법

- ①기도회 동안 본당 미사에 참여한다.
- ②7일 기도회의 지향을 갖고 기도한다.
- ③본당에서 배부되는 유인물을 이용하여 매일마다 한국 성인 호칭기도를 바친다.
- ④성년 전대사 지정 성당(중앙, 전동, 나바위)을 방문하고 기도한다.
- ⑤교구 한국 성인 탄생 경축대회에 참여한다.

전문의*이비인후과. 안과 송이비인후과의원

이리시 중앙동 1가 16-12
TEL. 52-5250

원장 송기준 (레오파노)
유은희 (아네스)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설치한 보안당 렌즈센터

가볍고, 얇고, 원근조절 렌즈, 김 안서리는 렌즈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전주구역전오거리 ☎ 3-3032

신속배달 설비시설 한국 가스 상사

☎ 3-1457-72-0612

김성두(토마스)

이미자(안젤라)

“한국 성인 탄생 경축대회”

우리의 오랜 소망이었던 한국 순교자 103위 시성을 경축하면서 그분들의 모범에 따라 진리를 증거함으로써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모두 한 형제로서 참된 사랑을 나누고자 아래와 같이 경축대회를 개최하오니 교구내 모든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있기를 바랍니다.

☆대회주제: “서로 나누어 이 땅에 빛을”

☆행사일정과 행사개요

전야제-9월 22일(토) 오후 8시부터 전주 중앙성당에서

제1부: 참 신앙의 길 제2부: 영화상영 “소명”

본행사-9월 23일(일) 오전 10시부터 전주 해성학교 교정(숲정이)

제1부: 빛나는 조상의 얼과 우리의 다짐(성인 유해 행렬, 성인들의 생애, 나의 신앙고백)

제2부: 성인 탄생 경축 대미사

제3부: 바자회(가난한 형제들을 돕기 위해 각 가정에서 사용하던 헌옷, 가구, 가전제품, 그릇, 신발 등을 잘 손질하여 내놓고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어 줌.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본당 사무실에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잘 손질하여 전해 주기를 바랍니다.)

☆참가대상: 중학생 이상 교구신자·예비신자·타교구 신자

☆주최: 천주교 전주교구

☆주관: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 옥봉성당 기공식

월명동 본당(주임-이 재후 신부)에서 분리될 옥봉성당 기공식에 초대합니다.

일시: 1984. 9. 16(주일) 오후 2시30분(미사, 기공식)

장소: 옥구군 옥구읍 삼거리 옥봉교과 앞(비행장행, 저수지를 지나면 삼거리입)

주례: 박정일 주교님

□ 임실본당 오수공소 기공식

지난 9월 2일 임실본당(주임-박 중근 신부) 오수공소(15세대, 교우 60명) 신축 기공식이 있었다. 7개년의 집합지역인 이 지역에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는 성전이 이룩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갖도록 하자.

□ 정승현 신부님 전역

지난 5년동안 옥군 군중신부로 계셨던 정승현 신부님께서 8월31일부로 전역하셨다. 신부님께서서는 선교사로 남미에 가시기 위하여 11월경 멕시코 과달루페에 가시어 언어를 공부하시게 된다. 그동안 신부님의 노고를 감사드리고 어려운 길을 택하신 신부님을 위하여 기도중에 기억하도록 하자. 신부님의 뒤를 이어 군중후원회 지도신부로는 김희남 신부님이 임명되었다.

□ 추석(10일) 합동 위령미사

추석을 맞이하여 각 본당에서는 합동 위령미사가 봉헌된다. 온 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앞서가신 분들을 기억해야 되겠다. 이날 바쳐지는 미사에물은 전액 200주년 기념사업인 성지개발을 위해서 쓰여지게 된다. 본당에 준비된 위령미사 봉헌 봉투에 정성껏 예물을 넣어 봉헌하시면 된다.

요심이(579) 김병오

전공무원은 봉급의 1%씩
수재의 연금으로
내도록 지시!

의연금이란 라의에 의해서
내는 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연금의 뜻이 무엇인지
최신 국어사전을
찾아보자

의연금-국무총리가
공무원에게 공문에
따라 강제로 부과
명령 지시하는 돈

초대합니다
문정근(유스피노)
무용 발표회
일시: 9월 15일 오후 7시
장소: 전북 학생회관
초대권은 전주 시내 본당
사무실과 홍보국에서 나
누어 드림(선착순)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시설
☎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포니아)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

소흥영외과의원

의학박사 소흥영(요한)
전주시 서노송동 602-21
병일 ☎ 3668
자택 ☎ 8120

- 혼수(회갑) 옷감
- 특수 파티복
- 고급 칠구류
- 각종 솜 일체
- 커멘지

서울주단
☎ 0453 ☎ 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도매상

신부의집 (DRESS SALON-)

(미충·빌립·반환·판매)

- 웨딩드레스
- 약혼복
- 연주복
- 신부화장
- 페백의상
- 부케
- 야외촬영서비스 (악세서리)

관동도로 서울신탁은행 앞
대표 최영자 (헬레나)
☎ 6-6951



1. 사제 평의회: 14일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회의실
2. 센타 예비자반 6기 개강: 14일 오후 7시30분, 장소-가톨릭 센타 3층
3. 제2차 심성개발 프로그램: 15일 오후 3시~16일, 장소-센타 교육관, 모집인원-선착순 20명, 참가비-7천원, 접수 및 문의-교육국 (☎ 0041~3)
4. 하나회(장애자) 모임: 16일 오후 2시, 장소-센타 교육관
5. 9월 꼬미씨들 회의: 16일 오후 2시, 장소-전동성당, 대상-각 꾸리아 간부 및 직속 pr. 간부 전원
6. 전주지구 M·E 소식: 15일 오후 3시-M·E 소개 모임, 장소-센타
15일 오후 4시-M·E 전주 7차 재모임, 장소-센타
7. 제1지구 추석 합동미사: 10일(추석) 오전 10시30분-연도, 11시-미사(주교님 집전)
장소-전주지구 공동묘지(솔개재) ※ 벌초사제는 당일 지정된 사례금함에 성의껏 하시기 바랍니다.

제 1 지구 각 본당 소식 ①

(중암)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나춘성
사도 회장 김인협
전화 ①7111~3

1. 추석 합동 위령미사: 10일 10시30분 공동묘지 본당미사-오전 6시-오후 7시
 2. 복자반 영세: 16일 공식 미사중, 종합교리-12일~13일 오후 7시30분. 장소-강당, 면접-〈성인〉14일 오전 9시~10시-오후 7시30분 〈학생〉15일 오후 5시, 예절연습-15일 저녁미사후 성당에서
 3. 꾸리아: 16일 오후 2시
 4. 돼지 저금통: 16일까지 본당사무실, 교적번호기입요
 5. 제대꽃 봉헌: 「익명」 감사!
 6. 고등학생 성지순례: 16일-미리내-절두산 7시30분
 7.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젊은이들(남자환영) 본당 사무실에
- 지난주 봉헌금: 895,340원 교무금: 462,500원
감사헌금: 박미카엘-2만원·안 안드레아-5천원

(노송동)

신부 ①0969번 주임 신부 김홍태
수사 ②1032 사도 회장 이흥재

1. 신축기금 십일 합시다: 이걸용-30만원, 송희선-24만원, 김옥남-9만5천원, 박홍주·길연년-각12만원, 서영순·이윤순·한완순·김복식·이행자·이인기·박봉덕·김오지·이종철·문영진·이동섭·양기식-각10만원, 소계-2,075,000원(누계-101,611,000원)
 2. 추석 합동 위령미사: 10일 아침 6시(교회묘지에서 10시30분) 각가정의 선영들을 위해 미사에물 봉헌합시다
 3. 신학생을 도읍시다: 매주 각 미사후에 특별헌금 봉헌 합니다. 신학생을 위해 정성껏 헌금 합시다
 4. 신축기금 미션십세대 방음: 사도회와 전주 주진위원회 합동으로 아직 신앙을 안하신 가정을 방문합니다
 5.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각 팀의 간부님들 빠짐없이 참석 하세요
 6. 아파트 성모의 월례회: 13일 오전 10시 30분
 7. 공소순회 미사: 15일 저녁 8시, 황운리 공소
 8. 신용조합 판방교육: 16일, 장소-해금강 한려수도 접수마감 12일
 9. 차주전례 담당: 제 4조,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329,680원, 아파트: 114,240원
교무금: 198,000원, 아파트: 111,000원

(덕진)

신부 (3) 2182 주임 신부 김봉희
전화 수녀 (72) 1222 보좌 신부 김요안
사부 (72) 6259 사도 회장 양상열

1. 추석 합동 위령미사: 10일 교회묘지-10시 30분, 본당-저녁 8시 미사
 2. 순교자 성월(9월)신심행사
① 매일 순경이에서 미사봉헌(새벽 5시 30분)
② 교회사 및 순교전(순교자의 신앙)읽기
③ 성지순례-새신자 9월 30일
 3. 사도회 임시총회: 15일 오후 3시(한국 성인탄생 교구 경축대회 준비전)전위원회및공소대표 전원참석바람
 4. 새 영세자 부녀자 보충교리: 12일 오전 10시, 수녀원 전일 참석바람
 5. 금주본당 청소: 반석회·까리마스회(15일 오후 3시)
 6. 차주모임 예고: 반석회·청년회·학생회
- 지난주 봉헌금: 465,590원 교무금: 281,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 신부 권영균
사·수 2-5238 사도 회장 김성원

1. 추석 합동 위령미사: 10일 저녁 8시미사(새벽미사 없음)

2. 대학생 미사: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모임후 6시
 3. 홀인성사: 1개월전에 사무실에 신청바람
 4. 주일헌금: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고 더욱 많은 은총 주시라고 경성들이 빠짐없이 봉헌 합시다
 5. 22일 2시30분 영세 예절자 집중 교리: 12일~20일
 6. 미사시간 변경: 저녁미사-7시 30분 오후 8시
 7. 금주성당 청소: 월-평화의 모후, 토-구세주의모친 차주성당 청소: 월-사랑하오신 어머니, 토-순결하신 어머니
 8. 금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이충원 ② 정운주 차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이갑진 ② 송영자
- 지난주 봉헌금: 124,060원 교무금: 454,610원

(서학동)

신부 ①8307번 주임 신부 김동준
수녀 ②2276번 사도 회장 김낙균

1. 모임: 반회장님 월례회-오늘 공식 미사후, 꾸리아-오늘 오후 2시, 성심회-13일 오후 2시, 성모회-다음주일 공식 미사후
 2. 추석 합동 위령미사: 새벽 6시, 앞서가신 선영들을 위하여 미사에물 봉헌 합시다
 3. 주일학교 개학: 오늘 오후 2시, 미사-오후 3시
 4. 유아세례: 매월 세례주 목요일, 10일전에 신청바람
 5. 병자방음: 매월 세례주 목요일(미리신청 바람)
 6. 차주전례: 해설-신영창·오정희, 독서-① 김병희 ② 박종순, 신자들의 기도-셋별pr.
- 지난주 봉헌금: 310,010원 교무금: 133,000원

(숲정리)

전화 ①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②9567 사도 회장 김수준

1. 추석 합동 위령미사: 10일 오전 10시
 2. 미사시간 변경: 11일부터 저녁미사-오후 7시, 중고생 미사(토)-오전 6시30분
 3. 기념 영세자 모임(84. 4. 21): 18일 오후 7시30분
 4. 누갈다 부녀회: 12일 10시 미사후
 5. 금주전례: 해설-이기호, 독서, 기도-홍성조·김영희 차주전례: 해설-이기호, 독서, 기도-이귀례·신덕순
- 지난주 봉헌금: 193,510원 교무금: 289,200원

(전동)

신부 ①6208 주임 신부 김치삼
전화 사부 ②3222 보좌 신부 정양호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김병오

1. 장우회: 공식 미사후
 2. 성화회: 차주 공식 미사후
 3. 꼬미시움: 다음주 오후 2시
 4. 성 마리아 꾸리아: 다음주 오후 4시
 5. 성령 기도회: 매주(목)저녁 미사후
 6. 추석 합동 위령미사: 아침 5시 30분·저녁 7시30분
 7. 감사: 유태안-제대 카페트·진공 소재기·예절용의자 9개(230만원)
 8.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이주영, 독서-①김동연 ② 최병래
공식미사: 해설-서정옥, 독서-①유기동 ② 백종훈
저녁미사: 해설-이귀호, 독서-①최중만 ② 이훈
- 지난주 봉헌금: 800,230원 교무금: 393,000원

(호자동)

신부 75-3841 주임신부 박중신
수녀 2-4804 사도회장 이교성
사부 2-0915

1. 예비자 교리: 매주 공식 미사후, 매주 〈화〉오후 8시
 2. 추석 합동 미사: 본당에서, 10일 6시 미사(사무실에 미리 신청바람)
 3. 감사합니다: 주일미사에 양 안토니오 신부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주일학교 개학: 토요일 오후 4시까지 보내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262,540원 교무금: 204,000원